

음성장애에서 청지각적 평정 용어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일치도

¹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²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임혜진^{1,2}, 최철희¹, 김정규², 최성희¹

Background

훈련된 임상가의 귀에 의해 평정되는 주관적인 청지각적 평가 방법이 음성장애 평가의 표준화된 검사 방법(gold standard)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 용어나 정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일치도나 합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GRBA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음성이 다차원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척도만으로는 장애 음성의 청지각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한정적이며, 수용되지 않는 특성, 즉 비정상적 음도나 음질을 평가하기에 부족하여 음질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성장애에서 청지각적 평정을 질적 및 양적으로 기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용어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Methods

Titze(1994)가 제시한 25가지 음질 용어와 GRBAS, CAPE-V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에는 32가지 음질의 필요 정도를 0-7점(1=불필요한 용어, 2=꼭 필요한 용어)으로 체크하고 각 용어 및 정의를 우리나라 말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도 기술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에서는 음성장애 용어와 정의에 대한 주관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지를 바탕으로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국내 용어와 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Results

청지각적 평정 용어 중 필요도가 평균 6점 이상 7점 이하는

aphonic (무발성), breathy (기식성), diplophonia (이중음도), hoarse (쉰 목소리), nasal (비성), rough (거친 소리), strained (취어짜는 소리), tremorous (음성 떨림), pitch (음도), loudness (강도), falsetto (가성 발성)가 있었다. 필요도가 평균 3점 이하는 bleat (양 울음소리), strohbass (노래 중 튀기는 소리), twangy (비성이 섞인 윙소리)가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음질 용어는 pitch break (음도 이탈), voice break (음성 이탈), hypernasal (과대 비성), hyponasal (과소 비성), 유아 음성 등이 있었다. 전문가들마다 다른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각 음질 용어와 정의에 대해 완전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없었다.

Conclusion

발성 시 병리, 생리학적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청지각적 평정을 위한 용어를 개발하고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음질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질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개발된 음질용어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추후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협의와 실제 음성장애 환자들의 음성을 음질에 따라 분류하여 청지각적 평정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청지각적 평정, 음질